

“한국식 엘리트 코스...난 행복하지 않았다”

작년 연세대 휴학 후 미 전문대 입학
힘든 적응...이대성 형 조연 큰 도움
방학 동안 한국 들어와 매일 구슬땀
시즌 잘 치러 미국 4년제 편입 도전



한국 농구는 도전에 인색하다. 이웃나
라 중국, 일본에서는 1년이 멀다하고 해
외무대로 나가는 선수가 늘고 있지만 여
전히 한국농구 유망주들은 '명문대~명
문대~드래프트 상위지명~프로입단'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농구 유망주 양재민(20·200cm)은
그러나 도전을 택했다. 양재민은 16세~
19세 때 매년 해당 연령대 대표팀의 주
축으로 활약한 최고 유망주 중 한명미
다. 16세 이하(U-16)아시아선수권대회
에서는 한국의 사상 첫 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경북고 시절 스페인 유학길에 오
른 그는 지난해 연세대학교에 진학했지
만, 한 학기 만에 미국행을 결정했다.

방학을 맞아 귀국해 현재 서울에 머물
고 있는 그는 13일 “연세대에 있는 동안
스스로가 너무 작아졌다. ‘내가 여기서
뭘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자괴감이 들었
다”며 “남들은 배부른 소리한다고 할 수
있다. 명문 학교에서 좋은 감독님(은희
석 감독)의 지도를 받으니까, 그런데 내
가 행복하지 않았다”고 미국행을 결심한
배경을 털어놨다.



미국 니오쇼 커뮤니티칼리지에서 뛰고 있는 양재민은 방학기간 동안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스킵팩토리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는 16일 미국 캔자스로 출국해 두 번째 시즌을 맞는다. 하남 | 정지욱 기자

양재민이 지난해 가을에 입학한 학교
는 미국 캔자스에 있는 니오쇼 커뮤니티
칼리지다. 미국전대대학리그(NJCAA)에
속한 팀이다. 입학과정은 쉽지는 않았
다. 연세대를 나오자마자 LA로 향한 그
는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참가비를 내고
캠프에 참가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니오쇼 커뮤니티칼리지의 제레미 콧스
감독에게 연락이 왔다. 학비, 기숙사 등
을 전부 제공하는 조건이었다.
첫 해 적응이 쉽지 않았다. 팀 운동량이
상당했던데다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시간을 짜내 영어공부까
지 하면서 적응에 애를 썼다.

“고난의 연속이었다. 시즌 초반에는
동료들과 트러블도 있었다. 나에게 공을
안주더라. 힘들 때 (이)대성(현대모비스)
이 형이 멘토가 되어줬다. 시즌 중인데
도 장문의 문자를 보내줘서 도움이 됐
다. 그 후 동료들과 관계가 더 단단해졌
고 학업에도 충실했다. 첫 해 학점이 4.0
이었다. 농구부 선수 중 제일 높은 학점
이다. 지금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문
제가 없다.”

지난 5월 돌아온 그는 귀국직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스킵팩
토리에서 매일 오전, 오후로 운동을 하면
서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다. 멘토인 이
대성을 만나 같이 운동을 하기도 했다.

“대성이 형이 같이 운동을 하자면 압
구정동에 있는 체육관에 새벽 5시반까
지 나오라고 하더라. 겨우 일어나서 5시
20분에 도착했는데, 이미 형은 땀을 흠
뻑 흘리고 운동을 하고 있었다. 충격적이
고, 자괴감이 됐다. 미국선수들에게 방학
은 다음시즌을 앞두고 자신을 달고 달는
귀한 시간이다.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
지 않기 위해 매일 농구를 하면서 방학
을 보냈다.”

양재민은 16일 다시 미국으로 떠나 니
오쇼 커뮤니티칼리지에서의 두 번째 시
즌을 맞는다.

“일단 이번 시즌 잘 치러서 내년 4년
제 학교로 편입하는 것이 목표다. 비록
아무도 모르는 전문대에서 농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내가 꿈을 좇을 나이가
아닌가. 도전을 할 수 있어 마음은 행복
하다.” 하남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 문화품앗이 새 이름 공모

28일까지 이벤트 페이지 댓글 참여



대한체육회(회
장 이기홍)와 한국
문화원연합회(회장 김태웅)가 공동으로 주
관해 운영하는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
템(문화품앗이)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28일까지 진행되며 문화
체육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
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할 경우, 문
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홈페이지(cs
v.culture.go.kr)에서 회원 가입한 후 이벤
트 페이지 댓글로 참여하면 된다. (문의: 02-
6959-6804 헬프드스포트)

최종 수상작(1명)은 30일 문화체육자원
봉사 매칭시스템 및 대한체육회·한국문화
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
며, 부상으로 제주도 여행권 1매가 주어지
다. 참가자 중 30명에게도 추첨을 통해 영
화티켓(1인 2매)이 지급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문화체육
자원봉사 매칭시스템은 자원봉사 수요-공
급 매칭 활성화를 위해 2015년에 첫 출범
했으며, 2017년부터는 ‘문화품앗이’라는 이
름으로 운영되어 왔다.

2018년까지 19만4000여 명의 문화·체육
자원봉사자를 배출했으며, 4만2000여 건
의 봉사자-수요처 매칭을 성사시키는 등 문
화·체육을 매개로 봉사자 나눔 사회 조성
에 앞장서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메이저 퀸’ 고진영, 3주 연속 세계랭킹 1위

박성현 2위·박인비 6위·이정은 7위
삼다수 우승 유해란 1114계단 점프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 3주 연속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를 달렸다.

고진영은 13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9.30점을 기록하고 왕
좌를 지켰다. 지난달 말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 투어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

제패 이후 3주 연속 선두 수성이다. 당시
우승 이후 브리티시 여자오픈 3위와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13위로 호성적을 이어나간 점이 밑
바탕이 됐다.

이날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톱
10은 변동이 없었다. 박성현(26·솔레이)과
렉시 톰슨(24·미국)이 각각 8.60점과 8.71
점으로 2위를 지닌 가운데 박인비(31·KB
금융그룹)가 6위, 이정은(23·대방건설)이



고진영

7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나머지 톱10 선수
들도 순위 변화는 없었다.

한편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여자프로
골프(JLPGA) 투어에서 감각적인 우승을
차지한 유해란(18·SK네트웍스)과 허미정
(30·대방건설), 배선우(25·삼천리)는 세계
랭킹을 대폭 끌어올렸다. 여고생 추천선수
신분으로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를 제패한
유해란은 무려 1114계단을 점프했다. 1313
위에서 199위로 올라섰다. 스코틀랜드 오
핀에서 5년만의 LPGA 투어 우승을 거둔 허
미정은 36계단이 오른 43위를 기록했고, 올
해 JLPGA 투어 진출 후 첫 승을 챙긴 배
선우는 40위에서 34위로 발돋움했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어와 함께하는 스포츠키 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13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수	승	패	무	승률	경기차	연승	타율	홈런	홈런율	득점	실점	승률	도루	실책
1	S K	111	73	37	1	0.664	-	1승	0.267	3.35	0.648	535	411	91	89	64
2	두산	110	65	45	0	0.591	8.0	2승	0.273	3.57	0.618	548	432	66	69	66
3	키움	112	66	46	0	0.589	8.0	2승	0.282	3.93	0.633	612	483	85	82	81
4	L G	109	60	48	1	0.556	12.0	2승	0.268	3.89	0.593	492	490	67	79	71
5	N C	108	54	53	1	0.505	17.5	3승	0.279	4.12	0.556	521	493	99	60	79
6	K T	111	52	58	1	0.473	21.0	2승	0.276	4.58	0.577	497	543	74	75	81
7	K I A	108	47	60	1	0.439	24.5	2승	0.268	4.54	0.526	487	560	59	66	72
8	삼성	108	45	62	1	0.421	26.5	1승	0.263	4.54	0.526	486	541	99	87	77
9	롯데	108	41	65	2	0.387	30.0	1승	0.258	5.13	0.462	486	603	70	59	88
10	한화	109	40	69	0	0.367	32.5	1승	0.253	5.05	0.442	479	585	74	87	84

•Before & After 7-Game

팀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13화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20화	21수
S K	○	○	○	○	○	○	○	○	○	○	○	○	○	○
두산	○	○	○	○	○	○	○	○	○	○	○	○	○	○
한화	○	○	○	○	○	○	○	○	○	○	○	○	○	○
키움	○	○	○	○	○	○	○	○	○	○	○	○	○	○
K I A	○	○	○	○	○	○	○	○	○	○	○	○	○	○
삼성	○	○	○	○	○	○	○	○	○	○	○	○	○	○
롯데	○	○	○	○	○	○	○	○	○	○	○	○	○	○
L G	○	○	○	○	○	○	○	○	○	○	○	○	○	○
K T	○	○	○	○	○	○	○	○	○	○	○	○	○	○
N C	○	○	○	○	○	○	○	○	○	○	○	○	○	○

•팀간승패-남은경기

팀	SK	두산	한화	키움	KIA	삼성	롯데	LG	KT	NC
SK	■	6-0-5	8-0-4	8-0-6	5-1-6	9-0-2	10-0-2	9-0-5	10-0-3	8-0-4
두산	5	■	7-0-6	7-0-7	9-0-2	8-0-3	8-0-5	8-0-3	6-0-8	7-0-5
한화	4	3	■	4-0-7	4-0-10	3-0-9	5-0-5	4-0-8	7-0-7	3-0-8
키움	16	16	16	■	7-0-4	8-0-4	9-0-3	7-0-6	8-0-5	7-0-5
KIA	4	5	2	5	■	7-0-6	4-0-6	5-0-7	4-0-8	5-0-8
삼성	5	5	4	4	3	■	5-0-9	4-0-8	4-0-7	8-1-3
롯데	4	3	6	4	6	2	■	4-1-7	3-1-8	4-0-9
LG	2	5	4	3	4	4	4	■	9-0-2	7-0-5
KT	3	2	2	3	4	4	5	5	■	4-0-7
NC	4	4	5	4	3	4	3	4	5	■

(승=무패) *팀간경기없음

프로야구 기록표 <13일>

•삼성-SK

인선	삼성	0	0	0	0	1	0	0	0	0	1	2시간29분
SK	1	1	0	2	0	0	0	0	0	0	4	관중 7,978

•KT-롯데

사직	K	T	2	0	2	0	0	0	1	5	3시간22분
롯데	0	0	2	1	1	0	2	0	0	6	관중 7,207

•NC-한화

대전	N	C	3	0	1	0	1	0	3	2	10	3시간32분
한화	0	1	0	0	0	1	0	0	0	0	2	관중 5,167

•두산-KIA

광주	두산	0	0	1	0	0	1	2	0	1	5	3시간27분
KIA	0	1	0	0	0	0	0	1	0	0	2	관중 6,068

경기 수	타율	홈런	홈런율	득점	실점	승률	4사	희생	실자	자책점				
이재학	19	4	8	0	5.0	90	24	18	5	0	1	4.56		
박지국	6	3	2	3	1.0	22	5	4	2	0	1	4.34		
김민우	7	3	2	4	1.0	15	3	2	0	1	0	2.84		
김민우	8	7	5	4	1.0	10	7	3	3	0	0	2.68		
이영철	9	1	5	6	2.0	13	21	5	2	0	2	0.236		
김기훈	14	2	3	0	6.0	97	23	20	4	1	3	2	5.55	
하준영	7	6	4	5	2.0	12	6	4	1	1	1	0	2	3.95
김기훈	8	3	3	1	2.0	10	9	3	3	0	0	1	0	4.11
이우영	9	8	3	0	1.0	16	5	4	2	0	1	1	1	6.18

경기 수	타율	홈런	홈런율	득점	실점	승률	4사	희생	실자	자책점					
김민우	22	6	9	0	4.0	82	23	21	9	1	2	0	4	4.86	
전우승	5	6	4	2	1	0	2.0	25	6	6	0	0	2	0	3.88
김재현	7	3	2	4	1.0	22	6	6	3	0	0	1	2	3.12	
김재현	8	9	16	0	1.0	20	5	4	1	0	1	0	3	0	2.18
다익수	22	4	7	0	2.0	55	11	10	4	0	1	0	1	2	2.46
김건국	3	3	2	3	0	2.0	24	8	2	1	0	0	1	2	6.07
김민우	5	2	16	5	7	0	3.0	45	12	2	0	0	2	0	5.47
박성현	8	5	27	2	0	5.0	13	4	4	1	0	0	2	0	3.33
김민우	9	9	43	3	2	7.0	21	6	6	3	0	0	1	1	4.36

•키움-LG

잠실	키움	0	0	0	0	3	0	1	3	0	7	3시간53분
LG	0	0	1	0	4	0	2	0	1	8	관중 7,224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08.14 (수) 18:30	롯데 vs KT	